동서양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마음 힐링'

인터넷 '유나 방송' 개국 10주년 기념 콘서트

'건반위의 음유시인' 마이클 호페 초청
5월 13~20일, 구미 포항 서울서 공연
피아노 해금 팝페라 등 아름다운 향연
"앞으로 방송영상도 유투브에 업로드"



마이클 호페는 유나 방송 7주년 기념 콘서트에 이어 10주년 기념 초청 공연에 참여하며, 다시 한 번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4월 20일 LG아트센터서 열린 내한공연 모습.

마음공부 전문 인터넷 방송 '유나 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힐링 음악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유나 방송은 'You(너)'와 '나'를 뜻하는 말로,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모든 우주 생명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불이(不二)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2007년 정목 스님과 김재진 시인에 의해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47개국 7만 청취자들을 확보,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마음공부 및 명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채널이 다수 생겼지만, 유나 방송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접근성으로 두터운 고정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은 △정목 스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월) △최인원 한의사의 '두드림의 선물 EFT'(월) △김열권 법사의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화)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 '괜찮아지려면 꼭 해야할 게 있어'(수) △이윤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전문강사의 '마음을 만지는 대화'(수) △신행모임 고요한 소리(수) △나덕렬 교수의 '앞쪽형 인간'(화) △박민근 독서치료연구소장의 '치유의 책읽기'(목) △김재진 시인의 '가슴에 남는 음악(화, 금) 등으로 구성된다.

10주년 공연은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마이클 호페 초청 콘서트로 구미 · 포항 · 서울서 차례로 열린다.

마이클 호페는 '건반 위의 음유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한국에선 드라마 '가을동화' 삽입곡 '잊을 수 없는 마음(Unforgetting Heart)'과 광고 배경음악 '링컨의 애가(Lincoln's Lament)'로 유명하다. 이번 공연은 마이클 호페의 4번째 내한으로, 유나 방송의 7주년 기념 콘서트에도 참여한 바 있다. 마이클 호페와 유나 방송의 만남은 공동대표 정목 스님, 김재진 시인과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김재진 대표는 "마이클 호페는 대중적이진 않지만 음악이 매우 훌륭하다. 정목 스님과 내가 원래 마이클 호페의 팬이라 내한공연을 했을 때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당시 마이클 호페에게 유나 방송에 초청하고 싶다고 권유했는데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10년 전보다 마음공부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유나 방송은 특별히 홍보한 적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뿐 아니라 유튜브로도 방송 영상을 업로드 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내 인생의 순간들'을 테마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음악들이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신날새 해금 연주가와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뜨레보치가 협연한다. 피아노와 해금, 바이올린 팝페라의 아름다운 향연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 공연 세부일정은 △구미-13일 오후 5시 강동문화복지회관 △포항-19일 오후 8시 포항시청 대잠홀 △서울-20일 오후 7시 한전아트센터다. 정목 스님은 서울 공연에만 출연 예정이다. (02)577-059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김지욱의 '초혼' 서울연극제 오른다

5월 4~14일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

불자 연출가 김지욱 교수의 작품 '초혼'이 제38회 서울연극제 무대에 오른다.

'초혼'은 1980년대 극단 '동랑레퍼토리' 정기공연서 초연된 작품이다. 김지욱 교수는 이 작품을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 재구성해 이번 서울연극제서 재연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대사 없이 '아이고'란 감탄사 하나로 이뤄지며, 망자의 혼을 불러내 이승에서 한을 달래주고 저승으로 고이 잘 보내게 하는 위령제 형식을 취한다.

김지욱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시대의 업을 감당한 분들이다. 우린 모두 공업중생(共業衆生)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슬픔을 등한시 할 수 없었다"며 "모두와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나눠야겠단 생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5월 4~14일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시간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및 7시, 일요일 오후 4시다.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전석 3만원이다. 단체는 (20인 이상) 1만원, 연극협회 · 학생 · 예술인은 50% 할인된다.

김지욱 교수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해 미국 Sarah Lawrence College에서 연극연출 실기석사(Master of Fine Art)를 취득했다. 극단 The Creative Minority 대표 및 서울예술대 연극과 겸임전임강사 등 역임했다. 현재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뮤지컬전공 교수 및 극단 삼류극장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제38회 서울연극제는 4월 26일~5월 28일 서울 대학로 일대서 개최된다. (070)4205-1201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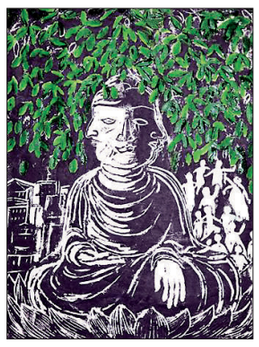
불교미술의 스승, 인류의 스승을 그리다

동국대 불교미술과 교수진 '2561, 석존' 展

불교 인재 양성의 중심, 동국대 불교미술과 교수진이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한다.

스페이스선+ 인드라망 프로젝트는 '2561, 석존' 展을 4월 19~25일 종로 삼청동 스페이스선+에서 개최한다. '석가불의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10명이 참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각자의 시각에 따라 조명했다. 참여 작가들은 고승희, 김종섭, 김창균, 도현, 마애리, 박경귀, 박철종, 이영미, 이재윤, 조수연 교수로 구성됐다.

김창균 교수의 작품 '바뀐 세상-전도(顚倒)'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좌선할 때 손 모양에서 오른손을 풀어 오른쪽 무릎에 얹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양)을 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전도된 형상으로 표현했다. 어지러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사방을 두루 향하여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관조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렸다.



김창균, 바뀐세상-전도(顚倒), 판화에 채색, 42X32cm

박경귀 교수의 '보리꽃 선족'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뤘을 때 모습이다. 부처님이 걸친 옷을 마치 조각보나 그물망이 얽혀있는 형태로 그린 것은 연기적 세상을 상징한다고 한다.

이밖에 김종섭 교수의 '싯다르타의 길', 고승희 교수의 '산화(散華)', 도현 스님의 '비밀집회아촉32존만다라', 마애리 교수의 '열반', 이영미 교수의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다' 등 3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02)732-0732

박아름 기자

'어린왕자'가 보성 대원사에 나타났다!

생택쥐페리재단 주관 '2017 어린왕자 특별전'

동심의 상징 어린왕자가 백제 천년고찰 보성 대원사에 나타났다.

생택쥐페리재단 주관 '2017 어린왕자 특별전'이 보성 대원사 티켓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벚꽃축제와 함께 열린다. 4월 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1년간 이어진다.

생택쥐페리재단은 2016년부터 한불수교130주년 기념 우리나라서 어린왕자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대원사 전시는 5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원사 벚꽃길 5km를 지나면 만나는 티벳박물관의 첫 번째 공간에선 생텍쥐페리가 실제로 사하라 사막에 추락해 죽음의 공포 속에서 기적을 기다리던 중, 밤하늘 별너머 걸어오는 어린왕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난다.

두 번째 공간 '어린왕자의 우주여행'에선 관람객이 직접 어린왕자가 되어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6행성을 다니며 각각 권력욕, 허영심, 소유욕, 허무주의, 이론주의 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지구에 내려온 어린왕자를 만나 여우와 길들임에 대해, 자신의 장미꽃의 소중함에 대해 듣는다. 또 네 번째 공간 '어린왕자 미공개 삽화전'에선 생텍쥐페리가 최초로 습작했던 어린왕자와 인물들의 드로잉 등 그의 그림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다섯 번째 공간에선 어린왕자 카페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왕자카페는 카페와 스토어, 전시를 하나로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와 함께 어린왕자 캐릭터를 살린 음료 및 베이커리, 아트팬시 문구 등 다채로운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올리비에 다개이 생텍쥐페리재단 이사장(생텍쥐페리 증조카)은 "어린왕자의 탄생배경을 알 수 있고 관람객들이 직접 어린왕자가 될 수도 있는 이번 행사가 전남 보성에서 열려 기쁘다. 이 전시를 통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금강 스님과 오치규 교수의 '좋은 만남'

5월 3~16일 '내 마음에 탑 하나II' 展

한 폭 종이 위에 펼쳐진 글과 그림의 만남은 언제나 아름답다. 여기에 대중을 위한 큰 뜻이 담긴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 추진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다.

미황사 금강 스님(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상임대표)과 오치규 충남대 교수는 '내 마음에 탑 하나II' 展을 5월 3~16일 인사동 갤러리 나우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추진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첫 번째 전시가 개최된 바 있다.

전시 작품은 오치규 교수의 그림에 금강 스님이 달라이 라마, 틱낫한, 법정 스님 등의 말씀들을 글로 적어 완성했다.

6일 오후 2~5시엔 금강 스님과 담소, 13일 오후 3~6시엔 금강 스님과 자유로운 이야기 '톡톡톡' 시간도 진행된다. (02)725-0930

박아름 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돼지감자,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췌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벽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정사) 대리점모집 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장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